

물길의 변화로 본 북촌의 장소성

나평순*

The Placeness of Bukchon Village Based on Waterway

Pyeong Soon Na*

요약 : 서울 중심부에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의 산줄기와 물길이 어우러진 북촌이 있다. 600여 년 간 서울의 주요 중심 지역으로 정치적·문화적 권력의 핵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북촌을 지리학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시간에 따른 북촌의 물길 변화 과정을 고지도와 근·현대 지도 분석 및 중첩을 통해 살펴본다. 각종 문헌과 신문자료, 자서전 및 토박이들의 서사적 이야기(narrative text)와 물길의 실제 답사과정을 통해 합치성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북촌의 장소성을 찾고자 한다. 연구 결과, 북촌의 물길은 일제강점기 이후 복개공사로 인해 실제 보이지 않지만 도로 밑에서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우물들과 빨래터가 남아 있어서 과거 물길을 증명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 또한 북촌의 물길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이 지역의 장소성을 의미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북촌, 물길, 토박이, 서사적 이야기, 장소성

Abstract : Bukchon village, the center of Seoul in South Korea, nestles snugly at a range of Bugack, Inwang and Naksan Mountains harmonizing with hills and small streams. The village has been a political, cultural and historical center of Seoul for about 600 years. Thus, the research on this place from a geological point of view is very meaningful. In this study, by overlapping and tracing antique maps and modern-contemporary maps, I found out how the water ways of Bukchon village have changed over time. I also confirmed the consistency among those changes and analyzed the placeness of Bukchon village by exploring various literatures newspapers, autobiographies and native people's narrative texts. After the research, I found out that the water ways in Bukchon village are hidden due to the covering construction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ut have been still flowing under roads up to now. I also ascertained that there remain some wells and wash places in the village which are the traces of the past water ways. I verified that though the water ways of Bukchon have changed a lot, they still are recognized 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which are influencing upon the placeness of Bukchon village.

Key Words : Bukchon, Water ways, Native people, Narrative text, Placeness

I. 서론

서울이 한양으로 수도가 될 때부터, 그 중심부에는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의 산줄기에서 발원한 작은 고개와 물길이 어우러진 청계천 북쪽 지역에 북촌이 있었

다. 북촌은 서울의 두 궁궐(경복궁과 창덕궁)사이에 뛰어난 경치와 궁궐과의 접근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관료이자 권력과 부를 가진 양반들이 모여 살면서 가장 살기 좋은 거주지라는 명성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북촌은 주요한 역사적 사건의 무대가 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박사과정(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naps00@sen.go.kr)

기에 남촌이 일본인들의 주거지화 되는 과정에서 북촌은 권력의 중심지 역할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더욱이 1970년대 이후 강남개발이 본격화된 이후 북촌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면서 좋은 주거지로서의 의미는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개발과정에 소외되었던 북촌은 현대적인 다른 도시들과 경관상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된 경관은 최근 '북촌한옥마을'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한옥이라는 주거 공간으로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을, 잘사는 북촌 마을이라는 이미지로 다시 북촌의 위상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동안의 북촌에 대한 연구는 도시학, 건축학, 조경학 등에서 여러 차례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연지형의 관점에서 지리학적으로 접근한 사례 연구는 많지 않다. 주로 전체 서울도시의 자연지형에 대한 연구 중에 일부의 사례지역으로 간단하게 설명되는 정도였다.

지형학적 요인이 특정 장소에 대한 입지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지형학의 메타포를 분석의 안내자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하여 그들 나름의 상관관계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Malpas에 따르면 지형학은 어떤 장소의 요소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가능성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김지혜 역, 2014).

실제로 이상구(2010)는 서울의 입지는 땅의 형상과 물길의 미세지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양보경(1994)은 서울이 수도로서 중심성과 인구 부양력의 가치를 절대적·상대적 위치의 중심성과 산지와 하천의 조화에 바탕을 둔 천혜의 자연적인 조건에서 제공되었다고 밝혔다. 김동실(2008)은 서울의 도시화는 지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형적 배경이 현재의 도시구조 형성에 밑그림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동환(2003)은 조선 왕조의 왕도로 건설된 한양은 「주례」 고공기의 원리와 더불어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풍수지리적 사상이 상호 결합하여 건설된 도시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형적 배경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지형적 배경이 도시 성장 배경과 성장과정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 구도심의 도시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형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특히 북촌은 지형이 북촌의 주거지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촌이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주거지와 권력의 중심지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다양한 요인들을 찾고자 한다.

지형 중에서 특히 물길이 도시 형성과 발달에 미친 영향력을 연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박현욱(2006)은 서울의 각 지역별 물길을 고지도에 근거하여 근대이후 도시 개발과정에서 서울에서 사라져버린 그 물길의 흔적을 찾았다. 이상희(2015)는 북촌 지역의 바위글씨의 장소를 찾아서 바위글씨가 있는 지역의 생태적 환경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그는 북촌지역의 물길 중에서 특히 삼청동천과 그 지류들의 특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송인호(2010)는 서울 도심의 내부는 수계와 도로체계가 중첩되어 있고, 수계는 미세지형의 굴곡을 따라 흐르는 물길의 네트워크이며, 서울 도심의 복잡한 골목길은 물길과 더불어 주름진 지형을 따라 형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북촌은 과거 600년 전에 도시가 설계될 당시의 지형을 거의 원형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장소다. 산지와 물길이 과거의 형태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물길은 길모양을 사라졌으나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 개발에 의한 변동이 크지 않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북촌은 서울의 중심에 있는 곳으로 사회적 변동에서 서울의 다른 주거지들과는 차이가 있다. 보통 도시의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 유목민'이라는 말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전출입이 매우 잦게 된다. 그러나 북촌에는 10년에서 50여 년 이상을 거주하는 토박이들이 아직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예전에 북촌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과 지금도 살고 있는 토박이¹⁾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북촌의 오래된 기억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소의 특징을 찾고자 한다.

Ricoeur은 자신에 대해 안다는 것은 해석하는 일이고, 자신에 대해 해석한다는 것은 이야기 속에서 삶을 이야기함으로써 형성되는 서사적 정체성임을 주장하였다(임은진, 2011:107에서 재인용). Gabriel은 허구의 이야기들은 재미가 있고 분석의 가치가 있는데 동의하면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진실로 여겨질 것을 두려워하였다. 실제로 허구와 진실의 서사적 이야기 사이에는 구조적 차이가 없다(Czarniawska, 2004:132)고 말한 것처럼 개인의 이야기도 허구를 넘어선 진실의 역사를 담을 수 있다고 본다. 서사의 이야기가 개인의 이야기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북촌의 물길과 장소성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북촌지역에 오래 산 토박이들의 인터뷰 내용은 소중한 북촌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토박이들의 구술을 찾기 위해 각종 자서전과 신문기사에서 북촌을 대한 이야기들을 조사하였고, 또한 실제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들을 듣고 구술을 채집하였다. 북촌의 물길은 본연구자가 매일 지나가는 삶의 장소이기 때문에 답사라는 특정개념이 아닌 생활의 장소로 접하고 있다. 물길들을 시작하는 지점에서 북촌의 영역이 끝나는 지점까지 그 흐름을 따라 걷다가 우연히 만난 할머니들과의 대화 속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북촌의 소중한 역사적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전체의 지형적 특징에 기반을 두고 북촌 물길의 구조적 특징과 물길이 시대에 따른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과거 고지도 속의 물길과 현재 도로와의 상관성을 통해 드러난 북촌의 흔적을 찾기, 그리고 600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물길이 북촌의 주거지 형성에 미친 영향과, 물길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서사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북촌만의 장소적 특징을 찾는 것이다.

II. 장소와 장소성에 대한 논의

1. 공간과 장소

사람들은 누구나 반드시 어떤 특정한 곳에 정착하여 주거하게 된다. 같은 거주 장소라고 해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경험과 사건, 나이, 학벌, 남녀, 출생지, 직업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다를 것이다. 인본주의 지리학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Tuan에 따르면, 공간은 추상적·물리적·기능적 성격을 지니는 반면, 장소는 구체적·해석적·미학적 성격을 지니며,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과 기억, 기대, 꿈을 바탕으로 그 공간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곳은 장소가 된다고 하였다(임은진, 2011:229에서 재인용). Schroer에 따르면, 장소는 언제나 그보다 큰 맥락 '속'에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문혀 있다. 일반적으로 단지 장소를 그 자연적 특성을 참고하여 기술하는 대신에, 장소의 의미는 그때그때 장소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에서 결과한다고 했다(정인모·배정희 역, 2010). Relph(1976)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도 살고 있는, 또는 특히 감동적인 경험을 가졌던 장소와 깊은 관련을 맺

고 있으며 그 장소를 의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계가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안정감의 근원이자, 우리가 세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외부로 지향시키는 출발점을 구성한다고 했다. 최병두(2012)도 장소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공간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경관과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장소는 겉으로 드러난 단순 경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미를 특별히 부여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산다고 해서 같은 의식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근대화과정에서 각 장소가 갖는 의미는 획일화되거나 인위적으로 형성된 가공처리된 공장의 물건들처럼 상품화된 장소에 대한 비판이 있다. Relph는 진정한 경험과 관련된 장소의 의미와 다양성의 깊이가 대부분의 현대문화에서는 크게 약화되었다고 한다. 즉 점차 의미있는 장소들이 사라지고, 무장소의 지리를 향하고 있으며, 밋밋한 경관, 의미 없는 건물 패턴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했다(김택현 등 역, 2005).

전통사회에서 근대화되는 과정에 급속도로 도시화를 겪은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이런 무장소성이 더욱 심하다. 특히 서울은 더욱 그러하다. 무장소적인 도시들 속에서 북촌은 다른 도시들과 구별되는 북촌만의 특성, 즉 북촌다움은 무엇일까?

본 연구자도 북촌에 처음 거주를 시작했을 때는 서울의 다른 거주지와 별반 차이성이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북촌에서 10년 이상을 북촌에 거주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애착이 있는 장소'로서의 북촌으로 다가왔다. 공간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익숙해졌다고 느낄 때, 공간은 장소가 된다(구동희·심승희 역, 2007: 124)라는 말처럼 북촌이 익숙하게 눈에 들어오고 애정을 가지고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북촌은 '공간'이 아닌 '장소'가 되었다.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서 그 장소에 뿌리를 내리면서 장소와 동일시되는 사람들의 감정을 갖게 되면 비로소 '장소'가 된다. 그리고 그 장소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경험과 의미들이 모이게 되면 그것은 공통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장소는 그 공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물리적 형태인 '용기(그릇)'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소의 구성요소에는 첫째로 물리적 환경이 전제되고, 둘째 물리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

용과 사람과 환경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지역만의 특징이 다른 지역과 구별될 때 '장소'라는 의미가 더욱 선명해지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리적 환경에 그려 놓은 흔적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기도 하고 변화되고 발전하게 되면서 장소의 특성이 만들어진다.

2. 장소성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character)을 살리기 위해서 옷을 독특하게 입거나 화장을 하거나 또는 말투가 남다르다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장소'도 그 장소만의 개성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 장소를 설명하려고 할 때 몇 개의 단어와 문장들로 대표할 수 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에는 그 곳만의 특징이 있게 된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한 그 장소만의 특색이 사라지거나, 비슷해지는 현상이 커지고 있다. 장소의 성격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장소에 대한 애착심 또한 더욱 퇴색되어가고 있다.

각 장소에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이나 애정과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아 정체성들을 포함한 장소에 대한 정서적인 감정들이 존재한다. 특정한 장소가 갖는 특성을 장소감(sence of placeness),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혹은 장소성(placeness)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장소성에 대해 Relph는 높은 자기 만족(self-confidence)을 갖게 하는 특정 장소에 대한 정체성으로 표현했고(김덕현 등 역, 2005), Williams and Vaske(2003)는 장소 정체성(place identity)은 장소가 자아를 나타낸다는 관점으로 종종 '자아와 '장소'간의 공존(resonance)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임은진(2011)은 장소는 그 곳에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에게 장소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사람들은 장소를 통해 사회화되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자아정체성 형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최병두(2012)는 어떤 특정 장소가 다른 장소들과는 달리 가지는 특유한 분위기로써 장소성은 그곳에 위치한 물리적 경관을 체험하면서 그 장소에 거주·생활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이들의 의식, 가치관 등에 따라 재형성된 것이라고 했다. 심승희(2016)는 장소는 따뜻하고 안정된 애착과 유대감을 느끼는 토포필리아(topophilia)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보편적인 사람들이 장소애를 느끼는 장

소의 공통된 특성들을 보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장소, 즉 안정감을 토대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장소라고 했다.

정미강(2009)은 수도권 중의 보통의 중소 도시인 부천시의 1960-70년대 산업화와 함께 급속도로 팽창한 서울의 위성 도시 중 하나였던 부천은, 서울에 대한 접근성으로 인해 인구 및 중소 사업장의 급격한 유입을 경험했다. 부천 시민에게는 '잠시 살다가는 도시', '언젠가는 떠나야 할 도시'라는 부천시의 이미지가 자리잡고 있었고, 실제로 10년 이하 거주자가 80%를 넘어 정주의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현상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시화율이 80%가 넘는 가운데 자신들의 거주지를 삶의 장소로서의 애착성을 갖는 거주자들은 매우 적다고 본다. 그 이유는 한 장소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도시 생활 패턴과 그로 인해 거주지에 대한 장소성이 형성될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대사회의 도시민들은 농경사회와 비교하면 한곳에 머무르는 시간은 매우 짧아졌다. 항상 이동을 많이 하는 현대인들에게 예전처럼 고향에 대한 향수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한 애정이나 장소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본다.

도시에서의 생활은 익명성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인 도시에서 거주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에서는 장소성의 형성이 또한 어렵다고 본다. 김현정(2015)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공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그 곳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공간을 향유했던 사람이 변화를 주도해야 할 입장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의식이 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다. 그리고 공간형태가 변화해도 그 기억은 지속된다고 하였다.

인본주의 지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장소 안에서 거주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장소성을 갖는다고 했다. 어떤 장소의 의미는 장소를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속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공통적인 관점은 있게 된다. 어떤 장소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나 외부인들의 공통된 장소성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생성되고 지속되기도 하고 혹

은 변화되고 재구조의 과정을 거치면서 장소성은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

Relph는 정체성이 장소 경험에 영향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향을 받기도 하는 장소 경험의 기본적 측면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한다. 더 나아가 정체성은 장소간의 차이나 동일성을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차이 속에서 동일성을 확인하는 훨씬 근본적인 행위이다(김덕현 등 역, 2005).

사람들은 각각의 장소에서 살면서 다양한 이야기 거리(storytelling)를 만들어 내고 그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전달하고 그 후손이 거기에 새로운 옷을 덧입히면서 그 장소만이 갖는 독특한 특성들을 만들어 가게 된다. 그래서 특정 장소와 그 지역의 장소성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과 상호작용의 특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장소의 특징과 의미를 정확히 알 때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커지게 되고 거주자들과 살고 있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사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은 반드시 장소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 그 흔적은 그 장소의 경관에 나타나기도 하고, 역사에 기록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 장소를 설명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장소성이다. 물리적 환경에 오랜 시간동안 사람들이 살면서 그 장소에 흔적을 남긴 장소에 대한 특유한 분위기, 혹은 정체성을 장소성(placeness)이라고 할 수 있다.

3. 장소성의 구성요소

어떤 장소의 장소성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보아야 할 것인가? 김진영(2011)은 인간, 경험양식, 물리적 환경을 장소성 형성의 3요소로 설정하였고, 정치지리학자인 Agnew는 '의미 있는 곳'으로서 장소의 세 가지 기본적 특징을 위치(location), 현장(locale), 장소감(sence of place)로 요약했다(심승희 역, 2012:9에서 재인용). Relph는 장소정체성의 요소로 물리적 환경, 인간 활동, 의미라는 세요소의 변증법적인 결합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Tuan은 보스톤에 있는 비콘 힐(Beacon Hill)마을의 한때 화려한 거주지로서의 특징을 설명했다. 그는 비콘 힐의 풍부한 장소감과 높은 가시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첫째 건축적 특징 즉 비콘 힐의 주택은 인접지역의 건물들과 구별되

는 한 가지 양식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시간이다. 즉 시간은 비콘 힐의 주민들에게 오랜 추억을 제공해 왔다. 세 번째 요인은 유명한 사건과 인물들이라고 밝히고 있다(구동회·심승희 역, 2007).

북촌의 풍부한 장소감과 높은 가시성은 투안이 말한 비콘 힐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건축적 특징은 서울의 다른 지역의 건물들과 구별되는 한 가지 양식이다. 그것은 적어도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한옥의 군락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촌에는 950여 채 가량이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서울의 구도심에서 한옥이 집중 분포하는 곳은 북촌이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시간이다. 비콘 힐이 미국이 신대륙으로 이전하던 그 시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2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면 북촌의 시간은 조선건국과 같이 시작되는 600여 년의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시간의 누적이 오랜 서사적 이야기(narrative story)를 가진 북촌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요인은 유명한 사건과 인물들이다. 오랜 시간만큼이나 그 시간에 해당하는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나타나고 사건들이 있게 마련인데 특히 북촌은 조선시대 이래로 1970년대 경제적 중심이 강남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한반도 서울의 정치적·문화적·경제적·사회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과 역사적 사건의 현장으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이들 학자들의 장소성의 중요한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사람과 물리적 환경 등이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장소성의 특징 3요소를 장소(地), 시간(時), 사람(人)의 상호작용에 의한 변화과정이라고 본다. 장소(地)는 자연환경으로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물리적 환경이다. 이것에는 지형, 물길, 방향 등 인간의 거주 공간으로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시간(時)은 물리적 환경(장소)에서 역사성으로 인식되며 장소의 변화를 가져올 요소로 작용한다. 인간(人)은 장소성 3요소 중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장소(地)에서 활동의 주체이며 장소(地)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고, 시간의 흐름에 능동적 혹은 수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장소의 특성을 만들어 가는 주체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장소(地)라는 물리적 환경 중에서 특히, 북촌 물길들을 시간의 변화 속에서 인간들의 다양한 서사적인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북촌만의 장소성에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장소, 시간, 사람의 상호작용의 결과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람들

이 특정 장소에 뿌리내림이 제대로 되었을 때 진정한 장소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III. 북촌의 장소성에 대한 논의

1. 마을 이름에 나타난 북촌의 장소성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북촌은 정치적·경제적·문화적·역사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북촌이 서울에서 중심적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원인을 북촌이 위치한 절대적 장소가 주는 힘에 있다고 본다. 북촌이 갖는 절대적인 위치의 장점은 고스란히 북촌의 지명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 북촌의 지명에도 그 정치적·경제적·문화적·역사적 사실들이 그대로 녹아 있다.

종로구청 홈페이지에 나타난 북촌의 지명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회동의 동명은 조선초기부터 있었던 북부 10방(坊)중의 하나인 가회방에서 유래된다. 계동은 원래 계동, 가회동, 원서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 이 지역에 제생원(濟生院)이 있어서 제생동이라 하다가 변하여 계생동(桂生洞)이 되었는데 1914년 동명 제정시 계생동의 명칭이 기생동(妓生洞)과 비슷하다 하여 계동으로 줄여서 고쳤다. 간동(諫洞)은 사간동으로 불리어 오는데, 그것은 이곳 경복궁 건춘문(建春門)의 길 건너편에 사간원이라는 관청이 있었던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삼청동의 동명은 도교(道敎)의 신을 모시는 삼청도관(三淸道觀) 즉 천청(天淸)·지청(地淸)·인청(人淸)등 도교의 삼신을 모시는 삼청전(三淸殿)에서 유래되었다. 소격동의 동명은 삼청전(三淸殿)의 삼청성진(三淸星辰)의 제사를 지내는 소격서(昭格署)가 있었다하여 유래되었다. 대안동(大安洞)은 큰 안동(安洞)이라고 하며 송현동·안국동·소격동에 걸쳐 있는 마을이다. 안국동의 동명은 이곳이 조선초기부터 있어오던 북부 10방 중의 하나인 안국방의 방명을 그대로 동명으로 한데서 유래된다. 화개동(花開洞)은 장원서의 화초 재배지가 있으므로 붙여진 명칭으로 화동(花洞)이라고도 하며 소격동과 화동이 인접한 곳, 대안동의 북쪽이 해당된다. 화동의 동명은 조선시대 이곳에 있던 화개동(花開洞)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화개동은 화기도감(火器都監)이 있었다는 설과 함께 화유(花圃), 화과(花果)의 일을 담당하는 장원서(掌苑署)가

화동 23번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꽃을 기르고 있으므로 글자 그대로 화개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줄여서 화동(花洞)으로도 불리었다. 원서동의 동명은 글자 그대로 창덕궁의 후원 서쪽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서동의 동명이 이루어지기 전의 이 지역의 동명은 원동(苑洞)이다. 재동은 잣골이라는 지명의 유래를 살펴보면 왕위 계승의 뜻을 품은 수양대군(首陽大君)이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켰을 때 단종을 보필하는 황보인(皇甫仁)등을 유인하여 참살할 때 이들이 흘린 피로 내를 이루고 비린내가 나므로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초목회(草木灰) 즉 재를 모두 가지고 나와서 붉은 피를 덮으니 동중은 온통 회(灰)로 덮였다. 그 후부터 이곳을 잣골 즉 회동으로 부르게 된 것인데 그 회동의 잣골이 재동의 잣골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처럼 북촌의 지명에는 국가의 중요한 관청의 위치와 역사적 사건의 장소였음을 그대로 남아있다. 조선시대 이래로 문헌에 기록된 북촌의 주요한 국가 기관들의 수는 다음과 같다. 경국대전에는 종친부와 의정부를 포함해서 20개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의정부를 비롯하여 모두 21개소, 증보문헌비고에는 28개소, 동국여지비고에는 38개소, 한경지략에는 22개소가 자리하고 있었다.²⁾ 조선 600여 년 동안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기관들은 북촌일대에 관성적으로 존재했었다. 북촌의 마을 이름은 조선시대의 역사적 사건이나 중요한 국가기관과 관련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북촌의 영역과 마을 이름은 거의 변화됨이 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차중천 등(2004)은 사회 계층과 주거지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오랜 시간에 걸쳐 역사적 변동을 분석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며 주거지 분화는 사회 구조와 역사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양보경(1994)에 따르면 서울은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계획도시였다. 그러나 서울은 단순한 풍수적 도시는 아니었다.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잠재력이 큰 도시였으며, 이러한 미래성은 현대도시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동환(2003)은 조선후기 한양공간은 신분, 직업에 따라 주거를 달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북촌에는 과연 어떤 거주자들이 살았으며 그들은 북촌에 어떤 흔적들을 남겨놓았던 것일까? 이미 많이 알려진 바처럼 북촌에는 조선 후기 노론들의 주거지

였으며 양반가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었다. 이렇듯 한양의 도시 입지는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라는 지형 그 자체가 상당히 강력한 환경적 조건이 되어 도시구조의 기본적인 틀로 규정하였으며, 조선 초의 신수도 건설에 있어서도 이러한 자연적 조건에 순응하면서 도시를 형성했고(이상구, 2010:25-26) 뛰어난 경치와 궁궐과의 접근성을 갖춘 자연적·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북촌에는 관료들과 권력과 부를 가진 양반들의 거주지가 되었다. 1906년의 호적자료에 따르면 북촌 전체 인구는 10,214명(1,932호)이었는데 이 중 양반과 관료는 43.6%에 달하였다(조준범, 2003). 1904년(광무 8년)에는 전국 인구가 5,928,802명(1,419,899호) 중에서 한성부의 인구 192,304명(42,730호)³⁾인 것을 감안하여 보면 대부분의 관료들이 그 당시에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경화사족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국 혹은 한성부 인구와 비교해서 북촌에 살고 있는 양반과 관료의 비율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양반과 관료들이 주로 거주하던 북촌에 대한 인식은 1900년대 잡지에 아래와 같이 서울의 여러 마을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에서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인식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북촌에 대한 장소성 이라고 볼 수 있다. 황성신문(1900년 10월 9일자)에 다음과 같이 서울의 각 지역 사람들에 대한 특징들을 서술하고 있다.

“북촌사람들의 말하는 품은 滯驚에 가까우며, 남촌사람들의 말하는 품은 敏捷에 가까우며, 상촌사람들의 말하는 품은 恭敬에 가까우며, 중촌사람들의 말하는 품은 倨傲에 가까우며, 하촌사람들의 말하는 품은 頑僕에 가깝다... 넷적의 서울처럼 사회조직의 整然한 것은 없었다. 王室을 중심으로 하고, 우으로 領議政 判書로부터 아래로 지계군 땅군까지 제 각히 소속이 분명하여, 一絲不亂의 整備狀態에 있었다. 平時에는 제각히 마른 바의 임무에 편안하고, 一朝有事의 秋에는 한 손의 밋해서 좌우를 決하게 되었었다. 그래서 서울城 안에는 그 거주하는 것조차 어느 편에는 어느 級의 族속이 살고 어느 쪽에는 어느 양반이 산다하야 아모 데에 사는 사람이라 하면 그 사람의 姓名 性質 如何를 물을 것 업시 그 사람의 品位 族屬의 如何를 直判하게 되었다. 이것이 물론 京城 開都 직후의 일은 아니었슬지나, 宣祖朝 年間 東人 西人 이 갈닌 이후쯤부터는 일층 그 線이 분명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성격이 바뀔 수도 있지만 북촌에 대한 인식의 변화되지 않았음을 다음 매일경제(1986년 8월 20일자)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서울에 사는 40대 이상의 사람이면 가회동이 어떤 곳 인지는 다 안다. 비원과 경복궁 사이에 위치하며 뒤로는 삼청공원의 자연경관이 빼어난 이곳은 그 옛날 양반 동네로 유명했고 해방 전후만 해도 서울의 상류층이 모여 살던 곳이다. 또한 60년대까지 경기고등학교가 존재했던 곳이며 사학의 명문인 중앙고 휘문고등학교도 이웃하여 있었다. 지금은 강남으로 이전해간 경기고등학교 자리엔 정독도서관이 들어섰고, 역시 강남으로 빠져나간 상류층 대신 중산층이 더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몇 년 전 이 일대가 한옥보전지구로 지정되면서 가지런한 기와지붕 사이로 우리 조상들의 맥이 이어지며 전통이 숨 쉬는 옛 마을로 남겨져있다.”

조선시대 이래로 형성된 북촌의 이미지는 개발시대 인구의 변동이 심해진 이후에도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촌지역은 북악과 응봉을 연결하는 산줄기의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어 예로부터 풍수 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알려져 왔다. 강남개발이 본격화되기 전인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 주거지였으며 자부심이 강한 한옥마을로서의 모습을 유지해 왔다. 조선시대부터 양반의 거주지로 형성되어 왔던 지역인 만큼 사적, 민속자료 등의 역사문화자원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정석, 2005). 이는 조선의 수도가 만들어 질 때부터 자연 친화적 풍수지리에 입각한 배산임수형의 전형적인 도시 입지를 따르고 있는 북촌은 가장 좋은 자연환경과 창덕궁과 경복궁 두 궁궐 사이에 있어서 정치적인 권력 중심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기에 조선시대 이래로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권력자들의 주거지라는 장소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의 중심지와 권세가들의 거주지라는 북촌의 특징은 바로 물리적 환경 즉, 지형적인 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지형적 틀이 훼손됨이 적고 특히 물길들을 중심으로 마을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북촌이다.

2. 북촌의 주요 물길을 중심으로 본 장소성

서울은 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으로 둘러싸인 경

계의 내외부의 땅의 형상을 보면 남·북의 북악과 남산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동·서의 인왕산과 낙산은 이보다 완만하다. 인왕산과 남산 그리고 남산과 낙산 사이는 평탄해서 남북방향보다는 동서방향으로의 평지가 연속되는 지세이다. 도성의 북측지역은 성곽 내에서 배산임수의 지세를 가진 가장 좋은 거주 환경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궁궐, 관청, 고급 주택가가 형성되었다.

이상구(2010)는 삼청동에서 중학동, 수송동 일대에서 인사동 서측 중앙부로 송현의 고갯마루가 이어지고, 그 서측에 가회동에서 인사동 동측 현재의 인사동길과 삼일로 사이를 흘러 내려오는 고갯마루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돈화문로와 삼일로 사이 지역도 가회동으로부터 언덕이 흘러 내려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대체로 우정국로, 인사동길, 삼일로, 돈화문로 등 길이 낮은 골에 해당하고 역시 이 길들과 함께 물길이 흐르고 있다고 했다.

과거 북촌에는 북쪽의 능선에서 남쪽으로 전개되는 구릉지를 따라 몇 줄기 물길이 흐르고 있었다. 이 남북 방향의 물길들은 청계천으로 흐르는 작은 물길에 불과하지만 북촌의 주요 지명에 젓골, 맹현골, 재생원골, 원골 등과 같은 옛 지명에서 보듯, 각 동네는 물길과 물길 사이의 능선을 경계로 좁고 길게 형성되었다. 여기서 ‘골’은 골짜기이고 곧 물길이며 한자로 말한다면 동(洞)이 된다. 북촌 동(洞)의 지명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지속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물길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현재까지 이 지역의 장소성을 이야기하는 주요한 아이덴티티로서 물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정약용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의하면 “리(里)가 귀한 이름이고 동(洞)은 천한 이름인데 지금은 풍속이 어그러져 사람들이 서울 지명을 모두 동으로 쓴다”(중략) 리(里)란 인위적으로 정연하게 구획된 가로와 필지로 구성되니 도시 내 거주 공간을 지칭하는 표현이 되어야 맞다. 정약용이 동(洞)은 천하고 리(里)는 귀하다는 것도 그 때문이었으리라. 그런데 오늘날 서울 시내 옛 도심 지역의 가로망은 정연함과는 거리가 멀다(전우용, 2008). 오늘날 행정구역의 명칭의 일반적 특징은 리(里)는 지방 면(面)단위의 하위개념의 행정구역명칭이고 동(洞)은 특별시나 일반 중소 도시의 구(區)의 하위행정구역 명칭으로 불리고 있어서 리(里)가 자연발생적이고 동(洞)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명칭으로 여겨질 수 있

다. 하지만 리(里)와 동(洞)의 어원적 특징은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라고 보인다. 동(洞)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획이 아닌 물길로 인해서 구획되었던 자연스럽게 구별된 지역의 경계 의미를 갖는다. 리(里)가 시대에 따라서 성격의 변화나 행정적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축소 또는 확대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동(洞)은 인공적 개발과정이 없이는 별로 변하지 않는 지명으로 남을 수 있다.

계곡 사이로 흐르는 물길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길이었다. 같은 계곡 안에서, 하나의 물길을 가운데 두고 형성된 생활공동체가 동(洞)이었다. 우리말 ‘마을’은 ‘물’에서 파생된 말이다(한겨레21, 2012년 12월 6일자). 북촌의 지형은 낮은 언덕들과 그 사이로 흐르는 계곡 사이로 흐르는 물길을 가운데 두고 이루어진 생활권을 만들었다. 그 물길들은 삼청동, 가회동, 계생동, 안국동 등 각각의 고유한 마을로 오랫동안 삶의 장소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물길과 물길 사이에 상대적으로 높은 언덕은 물길의 분수계로서 다른 마을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북촌의 물길은 일제강점기 이후 복개되고, 능선 부분까지 주거지로 변화되어 물길과 능선의 구분이 흐릿해졌지만, 남북 방향의 물길을 따라 영역성을 형성하면서 여전히 동네 이름으로 남아 있다.

18세기에 제작된 도성도를 보면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자리한 북촌에는 크게 5개의 물길이 있다(그림 1). 1933년에 제작된 경성정밀지도(그림 2)를 보면 안국동천을 제외한 다른 하천은 여전히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복개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삼청동천과 북영천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복개공사가 구슬들이 있는데 그 사실을 그림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나가 유코(2010)가 밝힌 바대로 경성부민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와 행정력은 주로 일본인들이 사는 을지로와 용산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고, 조선인들이 사는 북촌에는 그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북촌의 물길들은 서울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원형의 훼손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북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최근까지도 그 물길과 관련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물길에 대한 기억을 구술로 채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다른 도시의 도로들은 근대화와 개발과정에서 자연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형성된 것이 많다. 교통과 편의 위주의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해서 생긴 다른 도시의 도

로들과 북촌의 길들은 차이가 있다. 일제 강점기의 복개 공사가 쉽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 개발과정에서도 소외되어 있던 북촌이어서 대규모 지형을 없애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북촌의 도로들은 넓지도 않은 편이고, 직선화된 도로들이 거의 없다. 북촌의 남북방향의 물길은 그대로 남북방향의 도로가 되었다. 도로들은 자연스러운 구배로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물길은 도로가 되었다. 북쪽의 가장 높은 곳이 북촌 물길이 시작되는 곳이다. 북촌의 도로는 과거 물길의 구배와 흐름을 유추하기에 충분하다. 그러기에 북촌의 길은 아스팔트 도로 위를 걷고 있지만 속도가 중요한 고속도로의 길이 아니며 자동차들이 전유물이 아닌 사람들이 걷기에 적당한 구배와 속도와 여유를 즐기기에 충분한 환경을 갖는 길이다.

그림 3은 위의 1788년 도성도외의 여러 고지도에 기반을 두어 현재의 위성사진 위에 고지도에 표시된 과거의 물길과 현재의 도로들을 GIS로 중첩 합성한 결과다. 북촌에는 근대적 상수도 시설이 들어온 이후에 많았던 우물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현재 6-7개 정도의 우물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대체로 물길이 흐르는 곳에 우물을 파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남아있는 우물의 위치와 과거의 물길을 중첩해보았다.

그 결과 고지도에 표현된 물길들은 위성사진상의 도로들과 완전히 일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번 종친부 우물(그림 4(b))를 제외한 우물들의 위치는 과거 물길과 일치하고 있었다. 종친부 우물은 그 안내문⁴⁾을 보면 현재 위치가 과거 우물의 위치인지 혹은 옮겨진 자리인지 정확하지 않다. 과거 사진(그림 4(a))를 비교해보면 삼청동천에 있었던 우물이 삼청동천이 복개되는 과정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진 것이 아닌지 추정해 본다. 이 부분은 더 많은 연구와 사료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도로와 고지도에 나타난 과거 물길을 다시 중첩해보면 우물의 위치와 과거 물길, 현재의 복개된 도로는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의 물길은 지금의 도로이며 도로 양옆의 마을들은 과거 물길 사이에 두고 생활권을 형성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을들이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북촌의 동서방향의 도로들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도로다. 동서방향의 도로들은 과거에 왕래가 많지 않았던 작은 길이 확장되었거나, 1980년대에 비로소 새롭게 만들어진 도로인 경우이다. 이 동서방향의 도로들은 1940

년대 일제강점기 때 소개령에 의해서 처음 계획되었으나 해방과정에서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많았다. 1970년대에는 강남개발과 강북억제책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북촌의 대단위 개발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고, 1988년 올림픽 시기와 200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북촌지역의 도로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때 북촌의 동서방향의 도로가 확장되게 되었다. 지금도 주요한 도로는 남북방향이 도로들이다. 북촌의 동서방향 도로들은 지형의 순리에 맞지 않은 길이다. 그래서 동서방향의 도로를 이동하는 경우는 도로의 경사가 매우 급하다. 2013년도에 이런 동서방향의 가파른 도로들을 교통상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평탄화 공사⁵⁾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북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 가파른 도로들도 북촌만이 갖는 중요한 장소성으로 인식하여 끝내 평탄화 공사를 중지하는 성과를 갖기도 했다.

조선 후기 고지도에 비교적 자세하게 북촌의 물길을 비롯한 지형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그 물길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제작된 지도에는 도로로 변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북촌은 남북방향의 도로들을 물길들의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물길들을 찾고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행정당국에서 시도를 하고 있으나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쉽게 진행되는 않고 있다. 이런 시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북촌의 물길이 그 걸모습은 바뀌었지만 물길의 흔적이 남아있고 복원할 수 있는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북촌이 오랜 전통과 문화를 지속할 수 있는 장소성의 맥락에 물길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북촌의 물길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현재 복개된 도로의 형태로 과거 흐름과 동일하게 지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북촌의 물길이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도로로 변한 물길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물길이 북촌의 장소성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토박이들이 기억하는 물길에 나타난 북촌의 장소성

북촌에는 5개의 물길이 있다. 물길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물길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양하게 남아 있었다. 각종 신문기사와 자서전과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북촌의 물길과 관련된 내용들과 토박이들의 인터뷰에서 물길에 대한 구술들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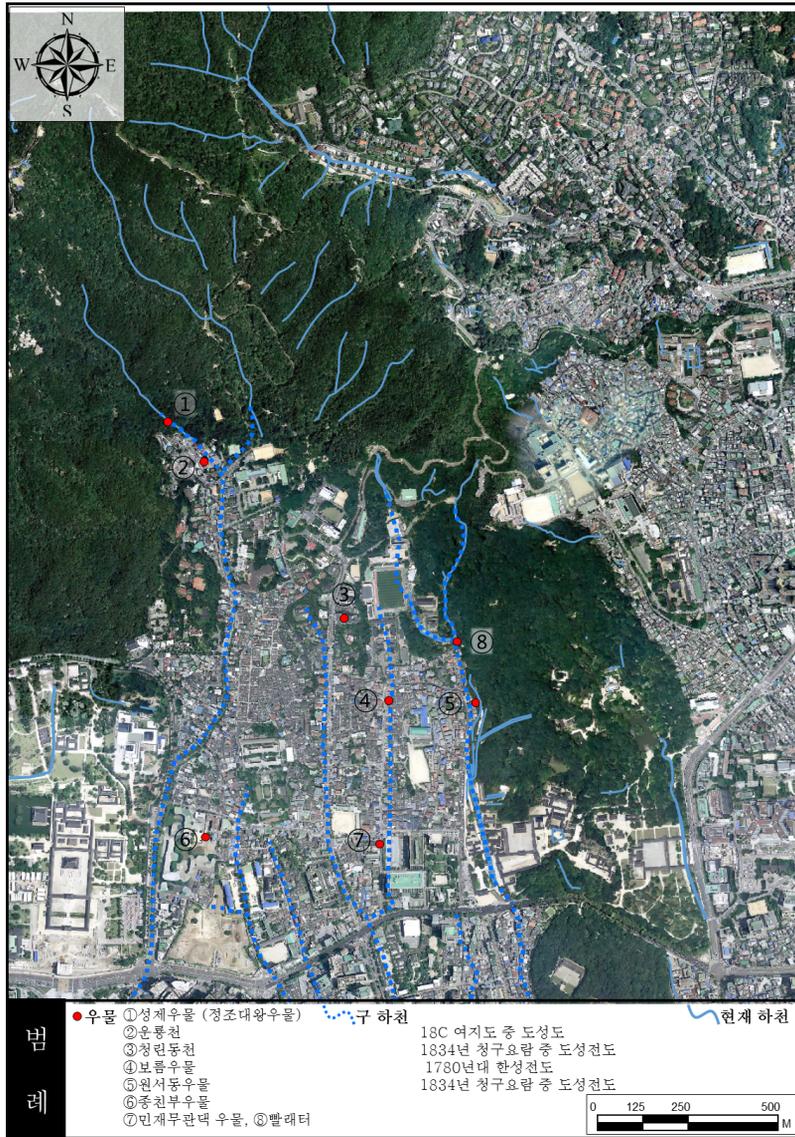


그림 3. 북촌 일대의 물길과 우물의 위치

* 네이버 항공지도에 저자가 표시.

해서 북촌의 장소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삼청동천에 대한 기억 속의 장소성

삼청동천은 북촌의 물길 중에서 그 유량이 가장 큰 물길이며, 1962에 비로서 복개공사를 하게 되어서 물길의 외형이 사라지게 되었다. 경복궁의 동편 동십자각을 지나서 위로 들어가면 삼청동문(三清洞門)바 위각자를 만나게 된다. 이 삼청동문은 삼청동 초입을 알려주는 것으

로 과거 삼청전(三清殿)이 있었던 곳으로 그 입구에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표시석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삼청동천이 시작되는 곳에 차고 시리다는 성제우물이 있다. 성제우물(그림 5)은 과거 삼청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우물이었다. 중종 조에 이르러 소격서와 행사 초제가 이단적 기구와 행사로 선조 때 완전히 혁파되었다⁶⁾고 한다. 이 성제우물은 음료수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성스러운 장소로서의 의미도 조선시대 이래로 꽤 오랫동안



(a) 1920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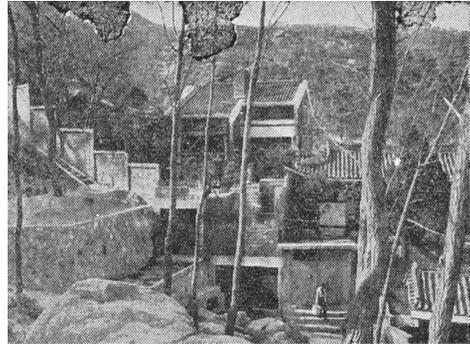
(b) 종친부터의 우물들

그림 4. 종친부 주변 우물

출처 : (a)는 문화재청, 2006; (b)는 필자 촬영(2015년 7월)



(a) 1908년



(b) 1972년

그림 5. 성제 우물 주변

출처 : 동아일보 1972년 4월 15일자.

동안 지속되어 왔다.

“...삼청공원과 성제우물 1908년의 수도 한성, 이번에 야 처음으로 인화지에 투영된 이 필름은 프랑스 빠리에 서 살아오다 1970년에 숨진 장(Jean)씨의 유품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와있는 그의 아들에 의해 공개된 것이다... 이 사진은 당시 녹음이 짙은 여름나절에 단맛이 나기로 이름난 삼청공원 성제우물가로 공을 드리러 왔던 부녀들이 점을 치고 있는 광경을 담고 있다. 노송이 우거진 수림 속에서 나이트 부녀들이 점장이들 가운데 두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

동아일보(1972년 4월 15일자) 기사에 실린 기사와 사진을 보면 그림 5(a)는 1908년 프랑스 Jean씨가 찍은 성

제우물 위에서 부녀들이 점을 치는 광경이다. 소격서와 삼청초제가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헐파되었다고 해도 성제우물 근처는 장소에 대한 관성적인 인식은 20세기까지도 지속되었음을 알려주는 사진이다. 현재는 음료수로서 역할은 거의 없지만 지금도 수량이 매우 많으며 더운 여름날에 등산객들에게 시원함을 제공해주는 곳이다. 성제 우물 주변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주거지로 변하여서 예전의 성스러운 공간으로서의 의미는 퇴색된 느낌이다. 하지만 여전히 성제우물은 건재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토박이들은 성제우물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애용되기는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청동천에는 고종황제 시절에 물 길어 오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하다고 궁과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물맛이 좋은 복정 우물을 어정(御井)으로 정한 뒤로는



그림 8. 동아일보 1924년 3월 24일 기사
출처 : 동아일보 1924년 3월 24일자.



그림 9. 정독도서관 맹현에 있는 우물
출처 : 필자 촬영(2015년 8월).

사에 “공동세탁장은 삼청동에”라는 기사에 의하면 경성 부청에서 공식적인 빨래터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공동세탁장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촌과 청계천 일대에 공동세탁장을 개설한다는 내용 기사가 많다. 또한 동아일보(1994년 5월 30일자)기사에 김덕순 할머니의 삼청동천에 대한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 일제 강점기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태어나 줄곧 북촌마을을 지켜온 김덕순 할머니(77)는 6.25때의 부산 피난 생활을 빼고는 서울의 근세기와 삶을 같이 했다. 김할머니는 “경복궁 옆 삼청동쪽에서 흘러내려온 맑은 개울물에 빨래하던 옛날이 눈에 선하다”면서 “북촌에서 흐르던 물은 청계천에 모여 큰 물줄기를 이루었으며 청계천 독방 주변은 동네 아이들의 제기를 차거나 공놀이를 하던 주요 놀이터였다”고 회상했다.

위 내용을 보면 삼청동천이 이 지역의 물길로 이 북촌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청계천 북쪽 주민들의 의식주의 중요한 기반이었으며 일상생활 공간으로서 중요한 곳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삼청동천이 1960년대 북개된 이후 현재까지 도로(그림 7(b))로 변하였다. 그 도로는 과거 삼청동천의 흐름과 구배를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그 위를 덮고 있기 때문에 직선이 아닌 곡선이 자연스러운 도로다. 빠른 것을 추구하는 신도시의 도로들과 비교해보면 삼청동길의 곡선형 도로는 어딘지 모르게 현대적인 도시의 가로망과는 거리가 멀다. 폭이 좁아서 차들이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앞지르기를 할 수도 없는 곳이다. 이 길은 예전 삼청동천의 물길 그대로 흐름을 연상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이유로 출퇴근 시간에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차들로 길이 막히고, 주말에는 삼청동으로 향하는 관광객들의 차량들로 항상 막히는 곳이지만 이런 불편함에도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은 굳이 빠른 것을 찾지는 않는다. 천천히 걷기를 원하며 여유있고 한적함을 누리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다. 삼청동천은 더 이상 성스러운 기도처로서의 의미, 주민들의 의생활에서 중요한 빨래터로서의 의미와 주요한 식음료수를 얻을 수 있는 물길로서의 장소성은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삼청동 길을 찾고 그 주변의 맛집을 찾아다니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삼청동천만이 줄 수 있는 느낌이 주는 여유와 멋스러움, 한적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성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2) 안국동천에 대한 기억 속의 장소성

일제강점기에 시구개수에 관한 훈령(총독부 훈령 제9호, 1912.10.07)에 의해 경성의 물길들이 북개가 시작되었다. 1913년부터 본격화된 시구개수사업은 주로 남촌에 이루어졌고 북촌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북촌주민들의 원성이 많았다.⁷⁾ 동아일보 1924년 3월 24일자 기사(그림 8)에 의하면 안국동천은 이 시기에 비로소 북개공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국동천의 출발인 지점에는 과거 맹사성이 살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맹동산’(혹은 흥천)이 있는데 그곳에는 누가 쓰던 우물(그림 9)인지는 모르는 우물이 있다. 1900년에 이곳이 한성중학교로 만들어질 때 현재 정독도서관 2관 앞의 언덕에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⁸⁾ 이 우물은 적어도 고려시대 정도로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a) 1902년



(b) 2015년

그림 10. 가회방동구교(嘉會坊洞口橋) 추정위치

출처 : (a)는 개일, 1902; (b)는 필자 촬영(2015년 5월).

안국동천은 일제강점기에 북촌에서 가장 먼저 복개도로가 되었으며 풍문여고에서 경기고등학교(현재 정독도서관)까지 이르는 비교적 짧은 물길이고 물길의 구배가 심하지 않아서 복개된 이후에 거주지의 밀집이 많은 곳이다. 과거 윤택영의 집터였던 안국동 일대에 식산은행사택⁹⁾이 1923년에 들어오면서 이 지역은 일본인 집단 거주지가 되었다. 일본인들의 거주지는 그들의 필요에 의해 교통조건도 좋아지게 되어 북촌에는 안국역 전차역¹⁰⁾이 생겼다. 그래서 안국동천 일대는 북촌의 교통의 중심이 되었으며, 근대교육기관들의 입지함에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풍문여고 앞을 ‘학생거리’라고 부를 정도로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들의 발걸음으로 많았던 곳이다. 지금은 경기고등학교와 수송동 일대의 학교들이 강남으로 이전하여서 예전만큼 학생들의 발걸음이 많은 곳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광화문 일대가 대규모 집회 시위의 현장으로 민주화의 상징으로 불리기 전에 안국동 로터리 부근은 1960년대 과거 민정당사 앞 넓은 광장은 야당인사들의 집단 연좌데모의 성지¹¹⁾로서의 장소성이 보이고 있는 곳이다. 지금도 이 길은 종로에서 나와서 율곡로로 연결되는 북촌의 교통 중심지이다.

안국동천 일대는 일제강점기 때 북촌에서 가장 먼저 복개된 채 도로가 된 물길이다. 그때 당시의 도로 폭을 유지하고 있는 차가 다니기에는 매우 좁은 길이다. 좁은 도로 폭은 차가 빠른 속도를 낼 수 없었기에 사람들이 천천히 걷기에 매우 최적화된 길이다. 지금은 각종

음식점과 장신구와 옷가지 등을 판매하고 천천히 걸으면서 북촌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는 한적한 길이다. 완만한 경사의 구배를 가진 안국동천길은 안국역에서 정독도서관까지 안국동천의 과거 물길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 길이다.

3) 가회동천에 대한 기억 속의 장소성

북촌은 조선시대 이래로 서울 도성의 중심으로 주요 기관과 주거지였고 정치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곧 역사가 되는 장소로서 의미가 크다. 「조선왕조실록」 태조 7년(1398) 8월 26일 제1차 왕자의 난과 관련하여 가회방동구교(嘉會坊洞口橋)라는 이름이 나온다. 이때는 다리의 고유한 이름 없이 동네이름이나 건물 이름을 붙였던 것으로 보인다.¹²⁾ 김영상(1994)은 재동 96번지 현 재동파출소 부근에 있던 다리라고 밝히고 있다. 1902년 왕립아세아학회 한국지부(그림 10(a))에서 제작한 한성부지도에서 보면 가회동 초입에 표시된 다리가 보인다. 박○○(82세, 2015. 5.25)의 구술에 의하면 그림 10-b는 2000년 초반까지 재동파출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회동에 파출소가 있어야 되는데 파출소를 하려해도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땅을 사서 집을 지어줬어. 가회동에 계단올라가서, 남사 양복하는데, 그게 아버님이 기증해서 만든 파출소 자리야. 그 앞에 가회동 다리가 있었지” (박○○, 82세, 2015. 5.25)



그림 11. 취운정 1917

출처 : 동아일보 1993년 2월 15일자.

가회동천 길도 북촌의 다른 길들과 마찬가지로 복개 공사가 일찍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 불결한 하수구로 인해서 각종 전염병이 생겨서 매년 일본인들이 사는 남촌과 조선인들의 주거지가 차별적인 경성부의 행정으로 인해서 불만이 많았었으며 이런 민원이 겨우 동아일보(1931년 7월 18일자) 기사를 보면 북촌에도 소하수도 공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총공비 백만원으로 소하수구 대개수(북촌일대의 개천이 더욱 불결해 전염병균도 대개 여기서 생긴가) 국고 급보조를 신청, 경성부의 명년도부터 착수할 예정의 제 3기 소하수구 계속 사업의 국고보조 신청은 수일 전 총독부에 제출하였다 한다. 동사업의 내용은 명년도부터 소화 15년도까지 8개년동안의 계속사업으로 그의 총 예산은 백만원이라 한다. 부내의 중요 대하수구의 공사는 금년도로써 끝막을 제 2기공사로 대체 완성이 된다. 그러나 이밖에 소하수구 만은 아직도 원시적 형태를 벗지 못한채 그대로 불비하였다. 이는 특히 조선인의 거주지 북촌이 더욱 불안전하다는 것으로 부당국에서는 그를 금번 제3기 하수구공사로써 근본적 개수를 단행하리라는 것이다. 그런 이유는 경정부내의 전염병이 년중 끈치지 안코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전혀 이소하수구의 불안전한 불결로 말미암은 것이라 한다.”

계동마님이라 불리던 이규숙(김연옥 편, 1984:172)씨의 자서전의 내용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술하고 있다.



그림 12. 청린동천샘과 바위각자

출처 : 필자 촬영(2015년 8월).

“계동 네거리에다 사방에서 물 나오는 거 받아 나가는 걸 짜느라구 등그렇게 파구는 공사를 했거든. 그러구는 대니기 좋으라구 저그다 막대기루다가 큰 다리를 놔잡어. 우리 둘째 아들이 그 때 안국동으루 유치원을 다니는데 그 구경허느라구 데리구 다니는 할무니를 그리 끌구 대녔대. ~그때 아마 난 안 내다봤어도 재동서, 계동서 나오는 물을 아마 그리 빼게 허구서는 양쪽 큰길을 덮었나 봐. 그 후루는 양쪽에 물 내려가는 댕고랑이 없어졌어. 앞으로 맨들어서 그리 뵈 모양이지.”

위의 동아일보(1931년 7월 18일자)기사와 계동마님 이규숙의 둘째아들이 유치원 다니던 시절을 추정해보면 제 3기(1930~1935) 시구개수사업에서야 가회동천 물길의 복개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북개된 가회동천은 2000년대까지는 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가회동천에서 북쪽 가회동천이 시작되는 가장 높은 곳에 전망 좋은 곳에 취운정이 있었다. 취운정터(그림 11)는 현재는 감사원과 중앙고등학교 진입로의 높은 언덕에 조망권이 좋아서 예전 북촌에 살았던 양반네들이 활을 쓰고 시회를 갖고 음풍농월을 했던 곳이다. 이곳이 국운이 끝나는 과정에서 일제에 협조한 친일파 귀족들의 구락부가 형성되기도 했었다. 또한 갑신정변의 주역인 유길준이 도미한 이후 귀국하여 유배된 신분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기행문인 「서유견문」을 집필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후 북촌 주민들의 공원으로 애용되던 곳으로 경성도서관이 들어왔다가 귀족 구락부에서 경제난으로 일본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북촌의 주민들이 매우 안타까워했다는 일화가 전해지는 곳이

다. 과거 대원군의 첩과 살았던 백록정도 취운정과 가까이 있었다. 이 일대는 1917년 경성부지적도에 보면 박영효와 민영휘의 소유로 되어 있던 곳이다.

그 취운정 터에 중앙고 교사와 학생들이 아침운동을 한 후에 갈증을 해소했던 샘이 있었고 그 곳에 청린동천(淸麟洞天)이라는 바위각자가 있다. 수소문 끝에 현재 계동 1-5번지에 해당하는 경남빌라 안쪽 정원 한 칸에 아직도 그 예전의 모습을 간직한 채 커다란 암반 사이로 과거의 물길의 흔적이 남아있다. 청린동천 약수(그림 12)는 안타깝게도 1993년에 이 빌라가 지어지면서 물길을 돌려놓았는지 지금은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대규모 주택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길을 끊어져서 그 흔적만 남아있는 현장을 보게 되었다. 개인 빌라 내의 정원에 숨겨져 있어서 쉽게 접근이 어려워진 청린동천을 보면서 공공성을 잃어버린 물길의 흔적이 다소 아쉬웠다. 취운정과 청린동천의 주변 학교의 교가에도 주요 가사로 남아 있는데, 100년 뒤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교가의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모르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현재 가회동천 길은 북촌에서 가장 넓은 길이다. 1993년에 헌법재판소와 감사원이라는 국가기관들이 가회동천의 시작되는 곳과 끝에 생기게 되면서 도로확장이 불가피했다. 그리고 2000년 들어서 ‘중계동-성북동-감사원-낙원상가’로 연결되는 도로 건설과정에서 가회로는 과거 물길의 규모와 다르게 확장되게 되었다. 가회동천의 확대는 북촌주민들의 요구로 확대된 것이 아니라 중계동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이 서울도심과의 연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도로 폭 확대이후에 이 길은 더욱 교통량이 많아졌고 천천히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물길의 장소성이 가장 많이 사라진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사적 중요성은 어느 물길보다 큰 곳이다. 그 이유는 북촌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서 물길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과거 이 높은 곳의 조망권 때문에 권력자들의 사유지이거나 왕실소유의 장소였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권력의 핵심지가 일반인들에게 분할되어 팔리는 과정에서 권력의 경계성이 다소 무너진 물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회로 물길 양안의 1번지와 5번지 일대는 일제강점기의 권력자들의 저택들이 있었던 곳이고, 넓은 필지의 대 재벌가 가족들이 지금도 많은 곳이다. 일제강점기이후 가회로는 권력 중심성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북촌의 다른 물길에 비해서 강하게 남아있다.

4) 계동천에 대한 기억 속의 장소성

계동길은 현재 북촌에서 가장 도로 폭이 좁은 곳으로 여전히 개발과 보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 곳이다. 1970년대에 소폭의 도로 확장이 된 이후로 변함이 없는 곳(그림 13(a), (b))이다. 특히 계동천은 당시 물길을 덮는 정도의 소화수구 공사를 했다. 그래서 1912년의 물길이었을 때의 폭과 비교하면 2001년도의 도로의 폭은 거의 변함이 없다. 변한 것이 있다면 계동천의 양안의 넓은 지반이 작은 지반으로 쪼개져서 1930년대 이후 도시형 한옥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계동길을 보면 과거 계동천 물길의 폭과 길이와 구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4에서 보듯이 도로의 선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이루고 있는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도로 자체가 과거 물길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계동 골목으로 말하면 매일 아적 수천 명의 남녀들이 내왕하고 있습니다. 언젠는 비가 내려서 땅이 대단히 진탕으로 곤난 중에 설상가상적으로 자동차 한 대가 대속력으로 오드니 통행인 수십 명의 의복은 꼴불견중에도 꼴불견이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잘못이나 경성부토목과의 잘못이나 말할 것 없이 속히 아스팔트를 희망하오.”

위의 동아일보(1936년 8월 7일자) 기사에 나온 것처럼 계동 주민들이 경성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하수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계동길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겨우 아스팔트로 이루어졌다고 토박이들이 구술하고 있다. 계동천 물길 주변에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들어선 소규모의 도시형 한옥들이 많은 곳이다. 계동길은 과거의 계동천의 원형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는 도로의 폭과 자연스러운 구배를 간직한 도로다. 계동천에는 보름우물도 과거 그 자리 그대로 있으며 우물에 대한 역사적 사건들과 최근까지 우물을 이용했던 토박이들의 서사적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고려대 총장이었던 유진오¹³⁾씨는 재동에서 태어나서 북촌 지역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었고 특히 중앙고의 원래 집주인이었던 노백린의 집터였을 때부터 이곳에 대한 기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의 기억 속에도 계동 1번지에 우물이 있어서 계동천의 수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지금 중앙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터는 나에게서는 한층



(a) 1912

(b) 2001

그림 13. 계동천 변화

출처 : 윤지환, 2010에서 재구성.

그리운 추억을 자아내는 곳이다. 그때의 집주인 노백린 씨와 나의 선친과는 어느 정도의 친교였는지는 모르나 가끔 서로 왕래하고 계동 101번지 우리 마당에는 노백린 씨가 타고 온 말이 가끔 매어 있고 한 까닭에, 나는 가끔 노백린 씨 댁에 가서 놀았다. 집보다는 터가 굉장히 넓었던 것이 기억에 남아 있으며 굉장히 깊은 우물이 있었던 것도 잊혀지지 않는다.”(유진오, 1954)

계동천의 노백린 집터의 우물에 대한 기억은 가회동 사시는 정○○씨(76세)의 인터뷰(2015.6.28)를 전사한 아래 내용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 중앙고등학교에서도 안에도 전에 우물이 있었잖아. 지금은 집을 지어버렸어.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떠다 먹었어. 맛이 좋았지. 공도 많이 들었어. 초가 만날 안 떨어져. 중앙고 야구부에서 쓰고 그랬지. 계동에 보름 우물은 먹지는 못 하고, 그건 끈적끈적 해. 참기만 하지. 옛날에 물 없을 때 빨래터로 이용해. 물맛이 근건 지롭해. 물이 안 좋아. 많이 퍼다 썼어. 빨래를 하면 푸름해져 버려. 빨래가 깨끗은 안 해.”

이 계동천 물길을 걷다보면 중앙고등학교 정문을 벗어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보름우물이 있다. 보름우물(그



그림 14. 계동천이 복개된 현재의 모습

출처 : 필자 촬영(2017년 3월).

림 15)은 보름동안은 물이 깨끗하고 나머지 보름은 물이 탁하다고 하여 보름우물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이 보름 우물은 천주교 주문모 신부가 세례를 할 때 쓰였다는 일화도 있다. 이런 유서 깊은 우물이 각 집에 수도가 들어가면서 현재는 사용을 안 해서 뚜껑을 덮은 채 우물의 형태만 남아 있게 되었다. 1970년대 사진(그림 15(a))에서는 보름우물 근처에 많은 한옥들이 보이지만 1990년대 말 이 지역의 건축에 대한 허용이 약화됨에 많은 다가구 빌라촌으로 바뀐 모습이 대조적이다.

이 계동에는 1번지 중앙고, 38번지 일대에는 대동고, 계동 36번지에 휘문고가 있었던 계동길이어서 주변에는 1930년대 이후에 늘어난 학생들과 이촌향도해서 올라온 조선인들의 거주공간인 한옥이 즐비하게 있었던 곳으로 한옥에 대한 향수를 갖게 했던 곳이다. 이런 계동에 1978년 현대가 휘문고 자리와 주변의 한옥을 대거 사들인 땅은 계동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면서 그 계동의 모습은 전통 거주지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의 빌딩숲들의 경관으로 변화하게 된다. 과거 학생들이 넘쳐나던 계동길은 사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점령을 하더니 최근에는 북촌관광의 출발지가 되었다. 과거 주거용 한옥들이 밥집이나 카페촌으로 바뀌면서 그 옛날 계동천 주변의 고즈넉한 경관의 변화가 매우 급속도로 변하였다. 현재 북촌의 물길 중에서 그 원형을 가까운 외형을 가진 도로가 계동길이다. 이 길은 자동차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으로



(a) 1970년대



(b) 2015년

그림 15. 보름우물 근처 경관의 변화

출처: (a)는 서울역사박물관, 2010; (b)는 필자 촬영(2015년 8월).

주로 등하교길의 학생들이 오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주민들의 생활이 장소이다. 지금은 관광객들도 많이 지나 다니는 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외부인들보다는 북촌 주민들이 생활하는 장소로서의 장소성이 짙은 곳이다. 계동길은 안국역 대로변의 휘문고가 강남으로 이전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앙고와 대동세무고의 정문과 재동초등학교의 후문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중요한 학교들이 계동길을 중심으로 여전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1930년대부터 1970년대 까지 북촌의 학생들과 거주자들이 북적이던 북촌의 장소성을 연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다.

5) 북영천에 대한 기억 속의 장소성

북영천은 북촌에서 유일하게 물길이 아직까지 복개되지 않은 일부가 남아 있는 곳으로 과거 물길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응봉에서 발원하여 창덕궁의 경내를 지나서 원동으로 내려오는 북영천은 현재 원서동 사람들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곳이다. 북영천에는 아직도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 지명 중에 빨래터라는 곳이 있다. 이 북영천은 창덕궁 요급문 근처에서 창덕궁 경내로 들어갔다가 돈화문 옆 수구로 나와 종로3가를 지나면서 창경궁 옥류천수와 만나서 청계천으로 합류되는 물길이다.

그림 16(a)는 1928년 정해창¹⁹⁾이 찍은 원서동 빨래터 사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촌 여인들이 빨래터에서 각종 빨래를 하고 표백하고 넣고 하는 장면이다. 북촌의 다른 물길들이 복개되어 그 원형을 알아볼 수 거의 없지만 원서동 빨래터는 북영천 끝자락에 그대로 그 원형이 남아 있다. 2000년 초반까지도 수도가 집집마다 가설이

된 이후에도 큰 이불 빨래들을 하러 다녔던 장소로 북촌 거주자들이 구술하고 있다. 그림 16(c)는 복개되기 이전 1928년경의 북영천의 경관이다. 북영천이 원서동 주민들의 삶의 중심지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진이다. 그림 16(d)는 그림 16(c)와 같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으로 물길 주변의 한옥과 초가집들은 현재는 현대식 건물로 변한 것 말고는 물길 그대로이다.

원서동 빨래터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른 물길에 대한 이야기들보다 다소 생생한 이야기들이 많았다. 원서동 빨래터(그림 16(b))는 지금도 원형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주자들에게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빨래터에는 과거 창덕궁의 궁녀들이 이곳에서 빨래를 했다는 이야기와 조선왕조가 망한 이후에 창덕궁에서 쫓겨난 궁녀(조선왕조 최후의 상궁 김명길은 원동 86번지에 살았다고 함, 경향신문, 1981년 9월 5일자)가 원서동 빨래터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궁궐의 음식문화가 전파되기도 했던 곳으로 기억되고 있다. 토박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빨래터가 북촌에서 삶의 장소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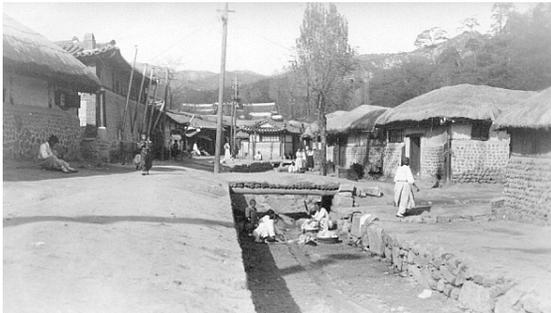
“나는 60년대 말 남편의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 동네도 이사를 왔는데 그 때 이 동네는 집값이 매우 비쌌어. 청량리와 휘경동이 평당 2,000원 할 때 북촌은 평당 60,000원이었어. 전주에 있는 집 270평과 는 20마지기, 밭 7마지기를 팔아서 이 집 55평을 샀어. 바로 여기 빨래터에서 채소 씻어 먹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했지. 지금 그 정도의 크기로 흘렀는데 창덕궁의 뒷산에서 흘러 청계천까지 간다네. 이 물은 아직까지도 한 번



(a) 원서동 빨래터(1928년)



(b) 원서동 빨래터(2015년)



(c) 원서동 길(1928년)



(d) 원서동 길(2015년)

그림 16. 원서동 전경

출처: (a)와 (c)는 정해창, 1928년 추정, (b)와 (d)는 필자 촬영(2015년 8월, 2015년 6월).

도 말라본 적이 없었어. 이사 왔을 때 이 동네는 궁녀들이 살았던 곳들이라고 해. 저 언덕 뒤에는 윤희후를 모셨던 궁녀가 살았다고들 해” (백○○ 할머니, 87세, 2015.09.19)

“내가 처음 이 동네(원서동)에 시집 왔을 때 그 빨래터도 있고 빨래터 입구에는 공동수도가 있었고 그 수도 요금이 1원인지 5원인지를 받았어. 원서동 가파른 고개에 물을 지고 나르는 사람들을 많았어. 못사는 사람들이 그 물을 길어다 먹었지. 나도 빨래터가 넓었었을 때 이불 훑처럼 큰 빨래들은 빨래터에서 지고 가서 큰 숲에 살고 방망이로 두드리고 말려서 가지고 왔지.” (봉씨 할아버지의 부인, 82세, 2015.08.23)

“원서동에는 비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내려왔어. 그 물 내려오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고 좋은 것이니까 사람들이 빨래를 잔뜩 이고 와서 빨아서 널어서 말리고 했어,

판 동네 사람들도 오고 그랬어” (박○○ 할머니, 82세 2015.05.25)

위의 구술을 종합해보면 그림 16(a)의 사진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처럼 구술하고 있다. 응봉에서 흘러나오는 마르지 않은 물과 흰 이불훑처럼 삶고 말리고 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구술되고 있다. 1970년대 복개된 북영천은 물길 그대로가 원서동길이 되었다. 단지 바뀐 것이 있다면 도로 옆에 있던 기와집과 초가들이 1990년대 개발붐에 의해 4층의 다세대 빌라로 바뀐 것밖에 없다. 원서동의 빨래터는 지금은 각 가정에 세탁기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그 역할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곳은 마을버스 정류소의 이름이 여전히 ‘빨래터’이다. 한번 형성된 장소성의 관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장소이다.

IV. 결론

수도 한양이 만들어질 때부터 서울은 풍수지리와 성리학적 질서 양쪽을 다 존중하며 만들어진 계획도시였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북촌은 자연의 질서 속에 600년이 넘는 과정에서도 인간에 의해 큰 변화 없이 과거의 원지형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번 물길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을 규명하고 특히 북촌의 장소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장소는 공간과는 다른 것으로 어떤 공간이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하고 그 공간에서 인간이 애정을 가지게 되는 순간 ‘공간’은 ‘장소’가 된다. 이런 장소에 그마다의 특징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장소성(placeness)이라고 규정한다. 장소성을 설명하기 위한 구성요소는 물리적 환경(地), 시간(時), 사람(人)의 상호적인 변화과정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북촌의 장소성은 오랜 역사적 기록(時)을 담고 있다는 점과 그 역사를 담는 그릇으로서 물리적 환경(地) 중에 물길이 북촌마을의 장소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북촌에 살았던 사람(人)들이 그 각각의 시간마다 기억의 층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소로 물길에 대한 기억들을 구술한 것을 가지고 북촌의 장소성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북촌에는 청계천 분지 안에 다섯 개의 물길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북방향의 삼청동길, 가회동길, 계동, 원서동길 도로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하수도 개수사업으로 북개가 되었다. 북개 후 확장을 하면서 현재의 도로가 되었다. 과거 물길의 원형이 형태의 변동이 없이 거주자들은 그 물길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하고 살았다. 북촌의 물길들에 대한 문헌, 신문기사와 토박이들의 인터뷰 과정에서 물길과 관련성이 깊은 우물이나 빨래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원서동의 빨래터는 지금도 빨래터의 원형이 일부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북촌에 살고 있는 토박이들은 빨래터를 아직도 이용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종로구에서 이 빨래터에 팻말도 새겨놓으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원서동 특유의 물길이 주는 장소성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를 보면 지금 사람들에게는 빨래터는 경제적 사회적 의미는 거의 사라지고 없었지만 원서동을 대표하는 곳으로 원서동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소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었다.

즉 북촌의 장소성은 배산임수의 장소(地)로 물길을 중심으로 형성된 생활권의 주요한 경계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북촌의 지명에는 국가의 중요기관과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지명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북촌을 기억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북촌이라는 장소는 600년 이상 지속된 시간(時)의 역사성을 간직한 거주자(人)들이 최상의 거주지로서, 권력의 중심지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곳이라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 주거지는 물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물길은 지금은 북개된 도로로 남아 있다. 북개된 물길은 여전히 북촌에 중요한 생활의 장소로 역할을 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경제성장과 개발이라는 목표만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문화와 역사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문화의 시대에 잃어버렸던 역사와 자기 정체성을 찾고자하는 사람들에게 북촌은 600여년의 역사성과 그 속에 남아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장소이다. 그래서 북촌에 남아있는 장소성의 보존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註

- 1) “1994년 서울이 조선의 수도로 정해진 지 600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사업의 하나로 토박이 찾기가 시작되었고, 이때 서울 토박이 선정 기준은 ‘선조가 1920년 이전 한성부에 정착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서 계속 거주해 오고 있는 시민’으로 함”(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0).
- 2) 이에나가 유코(2010:137)의 표 11과 표 13을 정리하여 그 수를 적음.
- 3) 조선왕조실록, 증보문헌비고, 호수총수, 탁지부의 내용을 참고 하여 작성함.
- 4) “이 우물은 조선시대 종친부에서 사용했던 것이며, 두 개의 타원형 갖들로 만들어졌다. 우물 갖들이 네모형 괴입대는 동서남북을 표시하며, 물동이를 놓기도 하고 정수를 떠 놓고 소원을 기원했던 자리다. 우물 옆 소나무는 약 300년 전 정자수로 식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1984년 2월 발견, 10월 7일 복원되다.”(종친문 우물 안내문 내용).
- 5) “종로구, 북촌 화동고갯길 개선 사업 중지, ‘화동고갯길 구조개선공사’는 지난해 10월 말 주민들이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10개 사업

- 중 하나로 예산 3억6000만 원이 배정돼 언덕길을 약 1m 깎아내려 길을 완만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아시아경제, 2013년 8월 1일자).
- 6) 현재 소격서자리는 삼청동길 입구에 있는 삼청파출소 자리에 명패가 있어서 그 위치를 짐작케한다 (이에나가 유코, 2010:116).
 - 7) 「外人의 勢力으로 觀한 朝鮮人 京城」 “衛生事業은 道路撤水, 大小便운반, 塵芥掃除 등이 그 중 중요한 것이외다. 이에 대하여 日人부락인 南部와 朝鮮人 부락인 北部에 얼마나 甚酷한 차별을 하는지는 目前의 허다한 實例와 각 신문에 거의 連日 掲載되는 報道로도 충분히 煩言을 피하거나 年年히 만 들어두고 비밀을 고수하는 所謂「掃除作業計劃表」의 일부를 소개한건대 인구의 地價는 물론 일반이 等閑視하든 極北地點의 地價까지 昂騰케 하여 安國洞4街 부근 坪價 50원 昌德宮 부근 坪價 30원, 光化門外 부근 120원 光化門通4街 부근 120원, 三清洞 八判洞 嘉會洞 靑雲洞 孝子洞 桂洞 25원 내지 30원, 社稷洞 彌雲洞 30원 내지 35원 積善洞 50원 으로 작년 중 地價의 7, 8割 내지 倍額의 激騰을 示하얏습니다.”(개벽, 제48호, 1924.06.01.).
 - 8) 경기고등학교 동창회, 2000, 「경기100년사」 “동근 우물물이다. 아마 전조(고려)때 것 같은 데 샘은 메어져 흔적이 없고 다만 돌만 우뚝하구나 광무4년(1900) 겨울 평제가 적다”.
 - 9) “관청회사의 사택 경성시내에 3200여호, 식산은행 51호 중 송현동 21호.... 이러한 집들이 한곳에 모여 일본 사람의 한마을을 이루는 터이며 우리는 그런 마을에서 쫓겨나와 산골작이를 차차 다니는 모양인데...” (동아일보, 1923년 1월 26일자).
 - 10) “안국동선전차 개통기는 오는 25일 어느대나 개통되는지 일반이 궁금하게 기다리든 종로 안국동 사이의 전차는 재작일까지 선로 부설공사를 전부 맞치고 운전준비에 착수중이라는데 이에 대하여 전기회사의 전차과장은 <당초의 예정으로 말하면 느껴도 이달 중순안으로는 운전하려던 것이 그동안 장마로 인하여 노설공사가 지체된 까닭으로 이리케 늦게 되얏습니다. 운전하는 방법은 광화문 통에서 해태압호로 가는 전차와 가치 전차 2채를 가지고 운전하게 되엿습니다. 운전하는 시일은 오는 25일 오전 5시부터외다>하더라.”(동아일보, 1923년 8월 21일자).
 - 11) 안국동 4거리 민충정공 동상을 중심으로 연좌데모하는 야당원들과 기동경찰이 붐비고 있다(동아일보, 1965년 6월 22일자).
 - 12) “정안군이 박포(朴苞)와 민무질을 보내어 좌정승 조준을 불러 오게 하니, 조준이 망설이면서 점(占)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거취(去就)를 점치게 하고는, 즉시 나오지 않으므로, 또 숙번으로 하여금 그를 재촉하고서, 정안군이 중로(中路)에까지 나와서 맞이하였다. 조준이 이미 우정승 김사형과 더불어 오는데 갑옷을 입은 반인(伴人)들이 많이 따라왔다. 가회방(嘉會坊) 동구(洞口)의 다리에 이르니, 보졸(步卒)이 무기(武器)로써 파수(把守)해 막으며 말하였다.” : 靖安君遣朴苞, 閔無疾, 召左政丞趙浚, 浚猶豫, 使卜者筮其去就而不即赴, 又使叔蕃促之. 靖安君迎至中路, 浚已與右政丞金士衡來, 帶甲伴人多從之. 到嘉會坊洞口橋, 步卒以兵把截曰;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26일條). 왕립아세아학회 한국지부(1902)에서 그린 지도에서 보면 가회방이 창덕궁 서쪽이어서 가회방동입구의 다리는 아마도 가회방계라고 쓰여져 있는 다리이거나, 청구도에서의 현재 안국역 2번 출구 근처의 추정되는 다리 또는 「서울 600년사(3권)」에 이 다리는 재동 72-1번지 재동파출소 부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재동파출소 자리가 국가에서 경매로 개인에게 팔아서 양복점이 들어서 있다. 화신백화점 사장 박홍식씨 따님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이 재동 파출소앞에 다리가 있었으며 박홍식씨가 가회동으로 자리를 잡을 당시에 가회동 일대의 치안 유지를 위해 이곳에 재동파출소를 지어주었다고 이야기함.
 - 13) 노백린의 집은 현재 중앙학교의 본관 옆 강당자리에 집이 있었으며 이 집이 후에 교장사택이 되어 3.1운동을 기획하는 장소가 된다. 현재 그 집의 일부가 같은 장소에 3.1운동 기념관으로 일부 남아 있다. 현재 이 학교의 지리 교사로 있는 김 교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 발령을 1999년에 기숙사 건물을 지은 곳에 우물이 있었다고 함. 그래서 우물의 정확한 위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수집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오랜 기억 속에 정확한 위치는 개인의 경험에 의해 다르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
 - 14) “예술사진 전람 29일부터 광화문 펠딩에서 예술

사진에 만혼 취미를 가지고 다년간 열심히 연구하던 정해창씨는 오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예술사진 작품 전람회를 광화문 뿔딩에 개최한다더라.” 이때 사진 전람했을 당시의 사진으로 추정됨(동아일보, 1929년 3월 28일자).

참고문헌

- 강연우·박소연·이희원, 2011, “북촌 가로경관의 역사적 변화과정,”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134-135.
- 경고등학교 동창회, 2000, 「경기 100년사」.
- 고동환, 2003, “조선 후기 서울의 공간구성과 공간인식,” 서울학연구, 26, 7-21.
- 구동회·심승희 역, 2007, 「공간과 장소, 대륙」.
-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김동실, 2008, “서울의 지형적 배경과 도시화 양상,”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상, 1994, 「서울 600년 - 북악 인왕 무악기슭」, 서울: 대학당.
- 김유경, 2009, 「서울 북촌에서」, 서울: 민음인.
- 김중현, 2010, “연속성의 개념으로 들여다 본 북촌에 대한 해석,” 서울역사박물관 답사자료, 28-29.
- 김지혜 역, 2014, 「장소와 경험」, 서울: 에코리브르.
- 김진영, 2011, “인간주의 지리학 관점에서의 장소성 프로세스를 적용한 문화지리학 연구: 소설 「토지」 속 평사리를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55, 1-16.
- 김현정, 2015. “19세기 말 20세기 초 김윤식의 교유망과 서울 북촌의 공간변화,” 서울학연구, 65-99.
- 문화재청, 2006, 「사진으로 보는 경복궁」.
- 박현욱, 2006, 「서울의 옛 물길, 옛다리」, 서울: 시월.
- 서울특별시 편, 2001, 「북촌가꾸기 기본 계획」.
- 서울특별시, 2010,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1997, 「서울 600년사(4권)」.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2010, 「서울 토박이의 사대 문 안 기억」.
- 송인호, 2010, “서울 도심과 옷대의 장소인문학적 정체성,” 제18기 서울역사박물관대학 자료집, 7-8.
- 심승희, 2013, “장소 개념의 스펙트럼과 잠재력,”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현대문화지리학의 이해」, 서울: 푸른길, 81-119.
- 심승희, 2016, “지리학의 관점에서 본 장소와 도시역사박물관,” 2016 서울역사박물관 학술대회 자료집, 27-28.
- 심승희 역, 2012, 「장소」, 서울: 시그마프레스(Cresswell, T., 2004, *Place: A Short Introduction*, Blackwell Publisher).
- 양보경, 1994, “서울의 공간확대와 시민의 삶,” 서울학연구, 1, 48-77.
- 윤지환, 2010, “도심지 전통주거지의 저층 집합주거 계획 연구-원서동 4-7번지 일대의 계획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규숙 구술, 김연옥 편, 1984, 「이 ‘계동 마님’이 먹은 여든살」, 서울: 뿌리깊은나무.
- 이기봉, 2008, 「조선의 도시, 권위와 상징의 공간」, 서울: 세문사.
- 이상구, 2010, “도서서울의 형성과 원형,” 제17기 서울역사박물관대학 자료집, 25-33.
- 이에나가 유코, 2010, “북촌한옥마을의 서울학적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해란, 2009, “서울시 북촌의 경관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은진, 2011, “장소에 기반한 자아 정체성 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107-121.
- 전우용, 2008, 「서울은 깊다」, 서울: 돌베개.
- 정미강, 2009, “텍스트로서 도시 공간의 테마화 연구-부천의 문화 공간 분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석, 2005, 「북촌가꾸기 중간평가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정인모·배정희 역, 2010, 「공간, 장소, 경계: 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서울: 에코리브르.
- 조준범, 2003, “도시건축제도와 서울 북촌 도시조직의 변화,”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중앙고등학교, 2009, 「중앙학교 100년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계동 일번지」(유진오, 1954, “중앙학교의 추억,” 계우, 31).
- 차종천·유홍준·이정환, 2004, 「서울시 계층별 주거지역 분포의 역사적 변천」, 서울: 백산서당.
- 최병두, 2012, “역사적 경관의 복원과 장소 정체성의 재구성,” 한국경관학회 특별세미나 자료집, 97.

태조실록 14권, 태조 7年 8月 26日 條.
게일, 1902, 「서울 지도(Map of Seoul)」, 왕립아세아학회
한국지부(RAS-KB).
규장각, 1788, 「도성도」.
서울역사박물관, 2006a, 「서울 지도」, 26(삼중출판사(三重
出版社), 1933, 「경성 정밀 지도」).
서울역사박물관, 2006b, 「서울 지도」, 47(경성일보사, 1914,
「경성부 명세 신지도」).
서울특별시, 1958, 「지번입 서울 특별시가지도」.
Czarniawska, B., 2004, *Narratives in Social Science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s.
Ricoeur, P., 1991, Narrative identity, *Philosophy Today*,
Spring, 73-81.
Williams, D.R. and Vaske, J.J., 2003, The measurement
of place attachment: Validity and generalizability
of a psychometric approach, *Forest Science*, 49,
830-840.
경향신문, 1981년 9월 5일자, “옛 서울 모습 그대로 보존,
한옥촌 가회·삼청동 일대”
경향신문, 1987년 2월 18일자, “우물할머니 화동의 정노
파, 정성바쳐온 반세기, 상감님의 물”
동아일보, 1923년 1월 26일자, “관청회사의 사택 경성시
내에 3200여호 만철회사 사택이 가장 만허”
동아일보, 1923년 12월 7일자, “공동세탁장은 삼청동에”
동아일보, 1924년 3월 24일자, “북부 하수도 설비, 안국동,
화동, 재동, 송현동길에 하수도를 설비하여 길도 넓
어진다”
동아일보, 1925년 4월 9일자, “빨내의 시절이 왔다”
동아일보 1929년 3월 28일자, “예술사진 전람, 29일부터
광화문 뽕당에서”
동아일보, 1931년 7월 18일자, “총공비 백만원으로 소하
수구 대개수(북촌일대의 개천이 더욱 불결해 전염
병균도 대개 여기서 생긴다) 국고 금보조를 신청”
동아일보, 1936년 8월 7일자, “계동길에 아스팔트”

동아일보, 1965년 6월 22일자, “안국동 4거리 민충정공 동
상을 중심으로 연좌테모하는 야당원들과 기동경찰
이 붙비고 있다”
동아일보, 1972년 4월 15일자, “삼청공원과 성제우물 약
수터 낀 녹음, 부녀들 점치기도”
동아일보, 1993년 2월 15일자, “유길준의 서유견문, 가회
동 1번지”
동아일보, 1994년 5월 30일자, “북촌토박이 김덕순 할머
니, 인사동 골목 옛자취 간직, 경북궁옆 빨래터 눈에
선해”
매일경제, 1986년 8월 20일자, “가회동”
아시아경제, 2013년 8월 1일자, “종로구, 북촌 화동고갯길
개선 사업 중지, ‘화동고갯길 구조개선공사’”
한겨레21, 2012년 12월 6일자, “전우용의 서울탐 뽕-인사
동과 관훈동의 유래를 아시나요”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3466.html)
황성신문, 1900년 10월 9일자, “네로 보고 지금으로 본 서
울 中心勢力的 流動”(1924, “京城洞町名の 由來 及
今昔의 比較, 서울의 洞里 일흥푸리-洞名 하나에도
史的 由來가 있다.” 개벽, 48호)
서울시 북촌 홈페이지, [http://bukchon.seoul.go.kr/road/
rintro.jsp](http://bukchon.seoul.go.kr/road/rintro.jsp)
종로구청 홈페이지, [http://tour.jongno.go.kr/tour/tour/campaign/
view.do?campaignId=188&menuNo=2370](http://tour.jongno.go.kr/tour/tour/campaign/view.do?campaignId=188&menuNo=2370)
교신 : 나평순, 030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74
(이메일: naps00@sen.go.kr)

Correspondence : Pyeong Soon Na, 03051, 174 Changdeok-
gung-gil, Jongno-gu, Seoul (Email: naps00@sen.go.kr)

투 고 일: 2017년 3월 29일
심사완료일: 2017년 4월 11일
투고확정일: 2017년 4월 15일